

【신년사 영상메세지】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알리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우리도 만물을 깨우는 진솔한 삶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불자 여러분!

불교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이며,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진달라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기운과 온화한 복덕이 두루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기도와 실천으로 국가의 번영과 민생의 안정을 이루는 최상의 길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이 뜻하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